

무주다움 실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황인홍 군수, 환경부·행정안전부 방문 주요 현안사업 지원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방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 교부세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총 사업비 19억6천만 원_특별교부세 15억 원 요청) △무주가족센터 건립(총 사업비 56억 원_특별교부세 11억 원 요청),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총 사업비 15억 원_특별교부세 10억 원 요청)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도5호선 선형개선 사업은 주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주를 내도리 전도마을과 후도마을 소재지를 연결하는 굴곡진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며 무주 가족센터 건립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응급복구 자재창고는 주요 배수관로 파손 등 사고발생 시 필요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



황인홍 무주군수가 1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중인 사업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용담댐 및 대청댐 상류 유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로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3건에 대한 2024년도 국비 총 11억 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총 사업비 26억8천여만 원_국비 3억 원 요청),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총 사업비 115억 원_국비 5억 원 요청)를 비

롯해 적성면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총 사업비 36억 원_국비 3억 원 요청) 등이다.

황인홍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이지만 지역발전 동력이 되고 주민행복의 기반이 되는 무주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무주군은 각 분야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 생활균형 확산·여성 고용유지 지원 약속

장수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7개 기업,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정희)와 함께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16일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정희 센터장을 비롯한 (주)신진에스엠(김은식 대표), 코렌스코리아(주)(김상현 대표), 농업회사법인동방제유(주)(남정호 대표),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장수군지부(김태현 대표), (유)미성(이명환 대표), 장수지역자활센터(김규중 센터장), (유)이삭(박순이 대표) 등 7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 구축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또한 7개 기업체 외에도 (주)원본, (주)피코바이오 등 15개 기업과 기업체 협



장수군이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7개 기업,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을 체결했다.

력망 회의도 함께 진행했으며,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구인기업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채용이 있었던 기업체로 여성인력 지원은 물론 환경개선사업, 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정희 센터장은 "협약에 참여한 업

체들이 더욱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새일센터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수군에 더 많은 여성일촌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 본격적인 홍보 나서

진안군, 9월 22~24일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일원서 개최

진안군이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진안홍삼축제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진안홍삼 축제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개최일을 결정하고, 내실있는 축제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 축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4월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참가해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전국 유일의 홍삼 축제의 명성을 알렸으며 5월에는 문경차사발축제,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등을 찾아 축제 홍보에 매진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진안홍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기 위해 전세계 수만 명의 생활체육인과 관광객이 모이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식이 열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를



를 운영하며 군 대표 캐릭터인 빠방이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진행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회의 사이클과 역도 경기가 진행되는 진안군 일원에서도 홍보를 펼치며 진안과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진안홍삼축제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군 관계자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축제 홍보를 통해 진안홍삼축제를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 축제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저온 피해농가 지원 위한 현장 살펴

무주군이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개화기(4월 7~8일, 27~28일) 2차례에 걸쳐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거나 서리가 내려 사과를 비롯한 복숭아, 인삼, 포도 등 작목의 꽃눈과 새순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6개 읍·면 845ha 규모 1,167농가로 1차 피해 농가가 2차에도 피해를 입는 등 중폭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무원들로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단을 꾸린 무주군은 지난 15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농가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 15일 피해 규모가 컸던 무풍과 무주, 안성, 설천, 적성 지역의 농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펴본 황인홍 무주군수는 "새순이 돌고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며 대중을 기대했을 농가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경"이라며 "피해 규모와 정도,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집계해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도와 농림부에 관내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복구 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국비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재난지수 300미만의 국비 지원 제외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봄철 '부주의' 로 인한 화재 주의하세요"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16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라북도 내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3,215건이며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981건(61.6%)으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 536건(16.7%), 기계적 요인 295건(9.2%)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임야 등 실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때 연등 및 촛불·향초의 사용량이 증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 물질 소지 금지 △담배꽂초 무단 투기 금지 △화재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최훈식 장수군수, 집중호우 피해 복구현장 점검

장수군이 지난 5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4일~5일 집중호우로 마을 공용주차장과 축대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장수읍 대덕마을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군은 다가오는 우기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덕마을 마을 공용주차장 및 축대 복구를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항구복구 계획이며, 현재 실시단계 발주를 완료했다.

최훈식 군수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 피해를 입은 현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진안군은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7억 5천만원인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38%(2억 8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세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울러, 금융 재산 압류, 직장 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